

발행인 : 김 중 응
편집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유 병 규
편집위원 : 박태일, 홍순직, 박덕배, 주원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02-3669-403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전시 작전통제권의 쟁점과 과제	
Executive Summary	1
I. 역내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	2
II. 전시 작전통제권의 주요 쟁점	4
III. 맺음말	6
< 토론 >	7
< 부록 >	7
■ HRI 경제 지표	17

전시 작전통제권의 쟁점과 과제

□ 역내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

- 한국의 동북아 영향력: 동북아는 세계 GDP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번성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역내를 대표하는 자유 경제시장원리에 기초한 경제 강국임
- 한미 동맹의 의의: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경제, 문화, 교육, 외교의 포괄적인 동맹으로 이는 역내 안정과 평화를 제공하여 역내 번영에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의 수혜자는 한미 양국임

□ 전시 작전통제권의 주요 쟁점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의미: 현재의 연합, 공동 지휘 구조에서 한국 정부가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독자적 지휘권을 가지는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미군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임
-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가능: 한국의 경제, 군사, 사회 발전, 위상과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갈망을 고려할 때, 신속한 독자적 지휘 관계로의 전환이 적합할 것임
 - 지속적인 억제력 및 전투 준비 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친 조직적인 활동, 훈련 및 연습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가능할 것임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한 한미 동맹 약화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며, 지휘 관계의 변화에 상관없이 미국은 한국의 진실한 우방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임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3대 선결 과제: 독자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함
 - 한국 정부의 전략적 전쟁 목표, 군사 목적, 요망하는 전쟁 최종 상태의 기준 설정
 - 미군이 전시에 투입할 지원 전력의 규모와 수준에 대한 합의
 - 새로운 지휘 구조 하에서 유엔사의 임무와 정전협정 유지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 관리 방법에 대한 합의

□ 맺음말

-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국민과 후손들의 평화, 안정, 안보,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경제 기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미 동맹은 지금도 필요하고 미래에도 필요함

전시 작전통제권의 쟁점과 과제

- 출처 : 21세기 동북아미래포럼
- 일시 : 2006년 9월 7일
- 연사 : B.B. 벨(Burwell Baxter Bell)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I. 역내 번영에 기여하는 한미 동맹

금일 동북아 역내와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한 저의 소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북아의 안전과 안정에 대한 토론을 할 때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세계가 동북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계 기업, 세계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북아는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즉, 이것은 세계에서 생산물의 25%가 동북아에서 창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세계 경제는 동북아의 경제력과 생산에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은 역내를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한국은 번성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 경제 강국임과 동시에 자유 경제 시장원리를 실천하는 데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경제, 문화, 교육, 외교의 포괄적인 동맹이며 이는 세계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을 축소, 심지어 폐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한미 동맹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군사 관계가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돈은 겁쟁이다(Money is a coward)"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벤처 캐피탈과 투자자들은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곳에 투자하기를 꺼려한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안전하고 안정이 보장된 곳에 기꺼이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미 동맹은 수세기 동안 역내 안정과 평화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투자자들이 경제 발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역내 번영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혜자는 한미 양국입니다. 동북아는 미국 전체의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간 교역량은 연간 7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 무역 파트너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교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는 4조 원을 넘었으며 이는 미국의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한국이 가치 있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미 양국은 국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이나 틈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여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II. 전시 작전통제권의 주요 쟁점

저는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사 사령관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사령부는 부여된 임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사령부는 한반도 안보와 안정, 동북아의 지속적인 안정에 헌신할 것입니다. 최근에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전시 작전통제권과 관련하여 세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서 동시에 보고를 합니다. 미국은 전시에 한국군을 지휘하지 않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시에 미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는 한미 양국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연합, 공동 지휘구조에서 한국 정부가 전시에 한국군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지원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신뢰할만한 우방으로서 독자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지휘 구조로 변경하여 한미양국이 합의하는 분야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한 측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가능

여러 번 언급된 것과 같이 미국은 한국 정부에 전시 작전권에 대한 갈망을 지원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군사, 사회 발전, 위상,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희망을 고려해 볼 때 공동의 지휘 관계보다는 신속한 독재적 지휘 관계로의 전환이 적합하고 실제로 달성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연합사 해체의 정확한 날짜와 독자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국가급 사령부 창설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지금 추진하라는 결심을 내릴 경우, 제 군사적 평가에 따르면, 지속적인 억제력, 그리고 전투준비 태세가 보장된 상태로 지금부터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친 활발한 조직적인 활동, 훈련 및 군사 연습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는 2009년에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동맹의 약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휘 관계 변화에 상관없이 미군이 한국 내에서 환영받는 한 미국은 헌신적이고 진실한 우방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헌신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3대 선결 과제

우리가 독자적이면서 상호보완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이 미래에 한미 동맹에 대한 군사 능력을 조성하는 데 이것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미래 동맹의 전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정부의 전략적 전쟁 목표, 군사 목적, 요망하는 전쟁 최종 상태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시 작전 지휘가 미국이 전쟁에 투입할 미군 전력의 적합한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새로운 지휘 구조가 유엔사의 임무와 정전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국정부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함에 있어 미래 북한과 정전 관련 대처 시 정전 및 위기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감에 있어 이 질문들과 추가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및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Ⅲ. 맺음말

53년간의 한미 동맹의 성과를 돌이켜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미 동맹은 미래에도 변화될 것입니다. 현실의 소요에 적응하는 동맹을 발전시켜나가는 데 있어 우리는 과연 왜 한미 동맹이 필요한 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기본 존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명료하고도 강력합니다.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 국민과 후손들의 평화, 안정, 안보,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경제 기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군사 동맹이 맺어진 이유이며 한미 동맹이 미래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국가 안보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우방이 되어준 것에 대해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참전 및 파병을 통해 우리의 세계 안보에 대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상, 그리고 우리 후세를 위한 공동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라고, 목표를 가지고 번영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도움으로 또 공고하고 지속적인 한미 동맹을 통해 우리가 가진 축복을 역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론

(황동준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전시 작전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및 한미 동맹에 관한 찬반 여론이 한국 내에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미래 한미 동맹 체계에 관한 논의는 9월 14일 정상회담과 10월 한미 연례 안보 로드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보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위협의 실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27일 럽스펠드 국방부 장관은 솔직히 북한은 한국에 대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라포트 전 사령관은 재임 중 다섯 차례에 걸쳐서 120만 병력과 800개 미사일,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 부대와 잠수함 전력을 가진 북한군은 심각한 한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불과 5개월 전에 벨 사령관님은 미 상원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250문이 현 위치에서 서울을 사정권에 두고 있고 북한의 120만 명 중 70% 이상이 평양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군은 한국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만에 미국 럽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말한 이런 북한 위협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군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짧은 시간에 북한의 위협의 실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북한 위협 실체에 대해서 사령관님의 솔직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작전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령관님은 지난 13일 여기에 있는 송영선 의원이 주최한 국회 안보 포럼에서 연합사 해체 이후 한미 독자 사령부 창설을 언급하였습니다. 연합사 해체 후 한미 동맹이 억제력을 유지하

고 전쟁에 승리하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전략적 군사 통제를 할 때 요망하는 최종 상태가 무엇인가 또 이때 미국이 기여하는 수준은 어떤 것인가 즉, 연합 지휘에서 독자적 지휘로 바뀔 때 미국의 지원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변화가 주한 유엔군과 정전 협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답이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전시 작전권 지휘 환수와 관련해서 한국 내 일부 반대 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 상당히 진전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령관께서는 위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한국 정부에 공개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 자리에서 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관련해서 미 국방부 장관은 2009년 한국 정부를 2012년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령관으로서 적절한 환수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 시기는 양국간에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미 독자 사령부가 창설이 되고 한미 공동 군사협조단(Military cooperation center)이 된다는데, 과연 전쟁 수행시 이런 것이 효율적인 군사지휘체제라고 보시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한미 관계 변화의 시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 위협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결정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협상에 대한 한미 관계를 보면 과거와 같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실무권 협상을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미 연례 안보에서 최종적으로 공동 발표되었는데, 이번에는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서한을 통해서 한국 국방부 장관에 통보를 하고 이것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볼 때 어떤 정상적인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에 대한 협상 채널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령관계서는 여기에 대한 한미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또 사령관이 한국에 3월에 부임하셨는데 오시기 전에 한미 작전권에 대해서 알고 오셨는지, 아니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서둘러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한국군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황원장님께서 종합적인 질문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국회 안보 포럼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대해 좀 상세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무엇이 구체적인 군사작전의 최종 목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휴전선 유지가 그것인지 아니면 분단선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전계획 50271)에 따라 정확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지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보, 정찰 수집 능력 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공군력, 지상전력 지원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직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등이 이를 압박하고 있고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1) 작전계획 5027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며 1, 2년마다 개정판이 나온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B.B. 벨 사령관) 골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 운동 실력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질문과 공통적으로 중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원장님께서 럽스펠드 장관의 북한 위협 평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전임 라포트 사령관, 그리고 저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생각을 비교를 했었고 또 이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럽스펠드 장관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고 저의 개인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진 럽스펠드 장관의 평가와 조화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군인으로서 군사 위협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상대방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을 53년간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거기에는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한미 동맹은 공고하고 강력하며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합니다. 숫자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0대 경제 강국이고 또 한미 동맹을 모두 합친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력에서도 가장 강한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은 세계 경제순위 87위이며 또 산업이 대단히 저조 되어 있고 우방이 없는 고립된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장에 대단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탁월한 군사 조직을 갖고 있으며 이 군사 조직은 현대화되어 있으며 21세기에 부합이 되고 기동성이 보장되며 군사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지상, 해상, 공중을 복합해서 모두 이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 분야에 대해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효과적인 억제력을 현재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격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 군대는 적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북한을 단순히 봤을 때 북한은 물론 군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적의 장사정포는 서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미 동맹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북한만을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미 동맹은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치명적이며 전투준비 태세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북한 공격시 우리는 신속하고 결정적으로 격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럽스펠드 장관과 제가 판단하는 북한 위협의 차이의 근거인 것입니다.

지휘 관계의 미래가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공고할 것입니다. 저는 세계 여러 동맹의 지휘 관계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들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장에 투사하는 능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군대의 지휘 통제 체계가 변화하더라도, 또한 군사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질문했던 이 분야들은 우리가 지휘 관계를 변화시키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는 연합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합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연합 지휘권 하에서는 군사 목적, 또 전쟁의 최종 상태, 이와 같은 사안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미군은 지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제가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계획, 또 지휘 구조는 변화될 것이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때 작전 계획이 변화될 것입니다. 전쟁 계획이나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근거로 변화하는 지휘권 구조를 판단해서 결정이 나와 할 것입니다. 그 후에 군대의 목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개적으로 토론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두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정책구상(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미래로 나감에 따라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휘 관계가 변화가 결정되기 이전에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군사력을 제공하는 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에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해서 재인식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시기, 날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문 내용이 되겠으며 최초의 분석에 기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한국군의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강력하고 탁월한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화되어 있고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미 연합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로 두 개의 대규모 연합 연습에 참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토요일에 을지포커스 렌즈 연습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군사 연습 기회를 통해서 저는 한국군 주요 지휘관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뮬레이션 된 전쟁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연습을 했는데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지휘관들은 탁월한 군사 지휘관이었다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 능력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탁월한 리더이며 한국

을 효과적으로 잘 방어할 것입니다. 대단히 수준 높은 훈련을 했고 또 경험이 풍부한 지휘관들입니다. 저는 이번 연습을 통해서 한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시뮬레이션 된 전쟁 게임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분들로부터 대단히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군사 식견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제가 적용하고 싶어서 따로 이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국은 이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 시기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군사적인 판단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 하는 것은 군사 연습과 훈련의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연합사 해체 후 우리는 억제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겠지만 억제력이 저하되어서는 안됩니다. 억제 실패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기간, 언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가에 대해서 하부 질문으로 미국이 현재 제공하고는 있는 군사 능력, 체계에 대해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가지고 현재 한미 양국이 이를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접근을 허락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브리징 케이퍼빌리티(bridging capability: 돌다리 전력)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국군이 군사 작전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어떤 갭(gap)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능력 중에 정보, 감시, 정찰 체계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장 지휘 체계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전장 지휘 체계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지휘 통제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휘관들에게 큰 군사적인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같은 전국급의 전장에서는 지휘 통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요 정보 정찰 감시 전장 체계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군은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군에게 이와 같은 체계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것이고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

해서 정보 정찰 감시 및 전장 체계에 있어서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방국에게 이와 같은 능력들을 제공할 것이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제 관점으로 3년 후에 한국군이 재조직 또 고도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양국간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2009년이 적합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중한 평가 후에 도출된 결론이며 3년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 목적, 시기 일정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 양국군은 현대적인 구조, 또 전투 준비가 완전하게 갖춰진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2006년도에 시작하게 되면 2009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조 본부(coordination center)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인 군사 지휘 통제가 가능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협조 본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교리 상에도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는 합동 정보 협조 본부가 있습니다. 미측은 이를 통해서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측도 역시 미측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이 합동 정보 협조 본부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융합하고 정보 생산물을 도출해 냅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한국군들은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협조 본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에도 협조 본부는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한미 양국군간의 교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연합 공중 작전 협조 본부가 있다고 할 때 이는 미래에 기능을 할 것이고 한미 양국 정부는 이와 같은 연합 공중 작전 협조 본부를 통해서 어떤 표적들을 타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조를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 지휘관들은 3년간에 걸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협조 본부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적으로 지속시켜야 할지, 또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 창설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럽스펠드 장관이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서 보낸 서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의 주요 군사 지도자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또 어떠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상호 합의한 내용에 한해서 공개합니다. 또 두 리더들이 미래 협상을 계속 이와 같이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럽스펠드 장관이 제공한 서한은 럽스펠드 장관이 처음으로 작성해서 발송한 것이 아니고 답변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리더 간에는 서신이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맹국간 정상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들은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주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서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 우선 순위는 무엇이나에 대한 질문인데, 환수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합 공동 지휘 체계에서 한국군이 피지원, 미군이 지원하는 동맹의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군은 적극적으로 작전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소요들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전례 없는 연합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사 연습시 한미 연합사와 한국 합동 참모 본부간에 투명성을 가지고 전장 지휘 체계를 통해서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상희 합동 본부 의장님과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합참의 장군, 대령들이 연합사의 지휘소에 참가해서 연습을 실질적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보더라도 절반은 한국군 주요 지휘관 참모들이며 절반은 그들의 미측 카운터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작업을 지난 53년간에 걸쳐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까지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전들에 대해서는 극복하고 성취가 가능할 것입니다. 3년 기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때 미군 측은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쟁을 통해서, 또 정전 기간 동안 56년간에 걸친 협력 관계를 자랑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군사적,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 군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 전투준비 태세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며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진실되고 지속적인 우방국입니다. 수십 년간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미 동맹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목적은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억제 실패 시 적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신속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한미 연합군은 강하며 미래도 강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미 동맹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휘 통제 메카니즘은 많이 변해왔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변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한미 동맹의 목적인 억제, 억제 실패시 결정적 신속한 승리를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미군은 미군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목적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RI

정리 및 교열

이해정 연구원 (hjlee@hri.co.kr) ☎ 02-3669-4487

부록

영문 자료

Whenever any discussion comes up about stabilit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it can generate intense worldwide interest. One of the reasons the world is so interested in this region is because we are all part of a global enterprise - indeed, a global economy. We depend on each other for our well-being and our quality of life. Last year, Northeast Asia accounted for fully one quarter of the world's gross domestic product. 25% of everything made in the world comes from this region. Because of this, the world economy is tied directly to the economic power and production from this area of the world.

The Republic of Korea is a key leader in this region. Your nation is a thriving democracy, a bastion of individual freedom, a world economic power, and a free market model. Because of this, the ROK-U.S. Security Alliance is no longer just a singular military Alliance; rather the Alliance represents a web of economic, social, educational, diplomatic and military relationships, all resulting in a society that is an envy of much of the world. There are some who want to see the Alliance minimized or even dismantled. We should guard against this.

Needless to say, our military partnership is a central and key component of our Alliance. There is a saying that "money is a coward". It means, of course, investors and venture capitalists are less likely to invest in regions of the world that are unstable and insecure. On the other hand, they will invest willingly and freely in areas that are stable and secure. For decades, our Alliance has brought peace and stability to this area, creating a secure environment attractive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favorable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at contributes to regional prosperity.

The result of all this has been beneficial to both of our nations. Northeast

Asia now accounts for $\frac{1}{4}$ of all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ROK-U.S. two-way trade totals 70 trillion won annually, with the U.S. as Korea's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U.S.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Korea exceeded 4 trillion won last year, demonstrating the trust and confidence U.S. business have in Korea as a valued, stable, and reliable partner, now and into the future. Now, for this and many other reasons,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nsure our Alliance remains a strong deterrent to aggression, with no cracks and no seams.

Standing before you today, I represent three commands - the ROK and U.S. Combined Forces Comm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While each command has its own role and mission, all the commands are committed to guaranteeing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tinued stability of Northeast Asia.

Combined Forces Command has generated a lot of discussion lately regarding the issue of wartime operational command and control. As you know, in commanding Combined Forces Command, I report to both the President of Korea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does not command ROK forces in wartime, nor does the ROK command United States forces in wartime. Within Combined Forces Command, responsibility for Alliance Command is a shared national responsibility.

The Republic of Korea desires to transition from our current combined and equally shared command structure, to a structure where ROK forces are singularly and independently commanded by the ROK Government during wartime. This would move the United States to a supporting role. In a supporting role and as a reliable ally, the United States would desire to organize its own independent and complementary command structure, providing military help and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ose areas of warfare where our two nations reach agreement.

As I've stated many times, the United States supports your nation's desires for independent command, and is working to reach agreement on the details. Given Korea's economic, military, and societal advancements, stature, and stated desires, the expeditious transition to independent command is proper and indeed very achievable. Our governments will decide the exact date for disestablishment complimentary national commands. If a decision by our government and complimentary national commands. If a decision by our governments is made to proceed now, it is my military assessment that such a transition can be achieved -- with assured continued deterrence and warfighting readiness -- over a three year period of focused organizational activity, training and exercising. This could result in executing the transition to ROK independent command in the year 2009.

For those who see this as a weakening of the Alliance, let me say this again: Regardless of the command arrangements and as long as we are welcome and wanted in your nation,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a committed and faithful ally.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not be compromised.

As we begin the transition to separate and complementary Alliance wartime commands, several important issues will have to be addressed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swers to these questions will help shape the military capability we will bring to the Alliance in the future. These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 First. In exercising independent operational command and in developing future Alliance warplans, what will be the ROK Government's strategic war aims, military objectives, and desired war end state criteria?
- Next, How will independent command by the ROK of its forces in wartime impact on United States' considerations for appropriate force contributions?

-- Also. How will this new command arrangement affect the miss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exercising independent command, how will the ROK Government manage the Armistice and exercise Crisis Management in any future Armistice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There and other important Alliance questions must be addressed and answered as we move forward.

When looking at our 53 year record of Alliance achievements, one quickly recognizes that we have made many, many changes over the years. We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 adapting the Alliance for contemporary realities and requirements, however, we must always have focus and must always capitalize on the reason WHY we need an Alliance. We have never, never allowed those who are opposed to the Alliance to interfere with the basic reasons FOR the Alliance: These reasons are clear, and simple and they are powerful -- Deter north Korea; Ensure peace, stability, security, democracy, individual freedoms, economic opportunity, and quality of life for the goo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ir children and their grandchildren. This is why we created this military alliance. It is why we need it now, and it is why we need it in the future.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commitment to your nation's security, now and into the future. Thank you for being a friend to America; and committing, over the years, to our security needs -- whether in Vietnam, Afghanistan or Iraq. We have common goals, common ideals, and common dreams for our future generations. Our children and our grandchildren deserve a chance to grow up in free democracies, strive for their goals, and achieve their dreams. With our help and with a strong and lasting Alliance, they will have the same opportunities that have blessed us. Thank you very much for allowing me to make these comments and I'll be glad to take a few questions after translation.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7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4	3.4	4.0
	민간소비 (%)	8.4	4.9	7.9	-1.2	-0.3	3.2	4.0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2.1	2.3	3.4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4	0.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6.4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1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2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4	3,14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0)	(10.4)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2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4)	(15.6)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2.8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6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